

교회재정공개 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건강한 교회재정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재정공개, 어디까지 누구에게 해야 할까?

건강한 교회재정운영과 투명한 교회재정을 위한 좌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교회의 재정 공개에 대한 현황과, 교회재정공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을 고민하는 분들과, 교회재정공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 열매나눔재단 지하 2층 나눔홀

■ 행사 순서

□ 사회: 김종희 대표(뉴스앤조이)

- 14:00 ~ 14:05 **인사말** □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14:05 ~ 14:15 **순서1** □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결과 분석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14:15 ~ 14:30 **순서2** □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 14:30 ~ 15:30 **순서3** □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패널 □ 문희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
패널 □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 15:30 ~ 16:00 **순서4** □ 질의응답

■ 목 차

-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결과 분석 □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3p
-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 □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8p
-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 문희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3p
- 단체소개
22p

■ 순서1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 에 관한 답변 결과분석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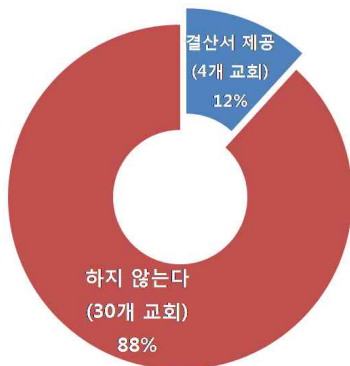
I. 전체 결과

※ 1차 공문 발송: 2013년 11월 8일(금) - 답변기한: 2013년 11월 29일(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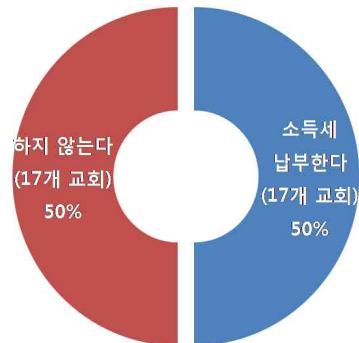
※ 2차 공문 발송: 2013년 12월 31일(화) - 답변기한: 2014년 1월 24일(금)까지

- 총 34개 교회 중 결산서 제공한 교회는 4개 교회(12%), 소득세 납부하는 교회는 17개 교회(50%)

전체 34개 교회 중 결산서 제공 여부



전체 34개 교회 중 소득세 납부 여부



- 교단 별 통계

합동 10개(사랑의, 수영로, 충현, 분당우리, 오륜, 제자, 삼일, 호산나, 새로남, 열린)
통합 6개(명성, 소망, 온누리, 영락, 주안장로, 거룩한빛광성)
감리 5개(광림, 금란, 송의, 선한목자, 만나)
기성 3개(신촌성결, 중앙성결, 충무)
기장 3개(경동, 한신, 동광)
기하성 2개(순복음인천, 여의도순복음)
독립교단 2개(백주년기념, 할렐루야)
예하성 1개(은혜와진리)
기침 1개(지구촌)
고신 1개(울산)

II. 결산서 제공 및 소득세 납부 교회

- 결산서 제공한 교회(4개 교회)

온누리교회(통합), 거룩한빛광성교회(통합), 울산교회(고신),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 소득세 납부하는 교회(17개 교회)

명성교회(통합), 소망교회(통합), 온누리교회(통합), 영락교회(통합), 주안장로교회(통합), 사랑의교회(합동), 충현교회(합동), 분당우리교회(합동), 오륜교회(합동), 열린교회(합동), 순복음인천교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기하성), 선한목자교회(기성), 만나교회(기성), 지구촌교회(기침), 경동교회(기장),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 소득세 납부하지만 결산서 제공하지 않는 교회(15개 교회)

명성교회(통합), 소망교회(통합), 영락교회(통합), 주안장로교회(통합), 사랑의교회(합동), 충현교회(합동), 분당우리교회(합동), 오륜교회(합동), 열린교회(합동), 순복음인천교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기하성), 선한목자교회(기성), 만나교회(기성), 지구촌교회(기침), 경동교회(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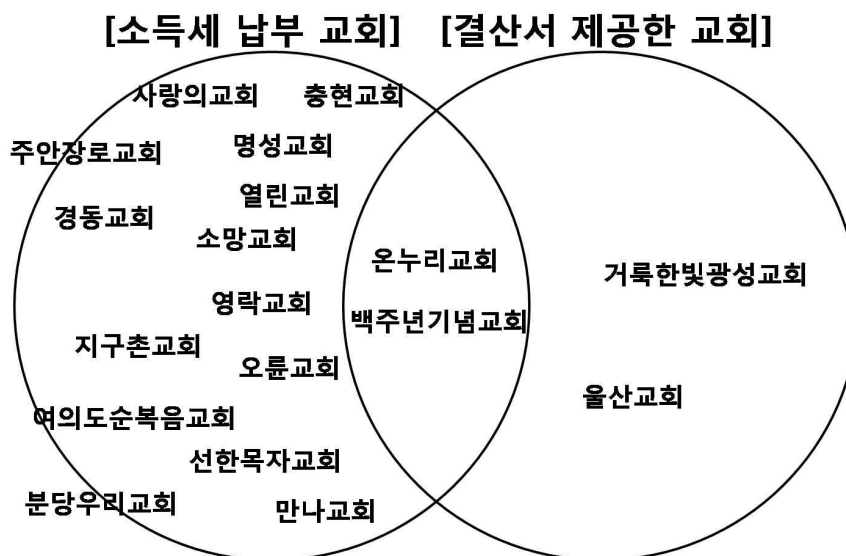
- 소득세 납부하고, 결산서도 제공한 교회(2개 교회)

온누리교회(통합),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 소득세 납부하지 않지만, 결산서 제공한 교회(2개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통합), 울산교회(고신)

- 소득세 납부 및 결산서 제공여부 도표



III. 각 교회별 답변(※ 응답한 교회만 집계)

1) 귀 교회는 재정 결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십니까?

(1) 스크린 화면 (과워포인트 등)	9개 - 열린, 동광, 호산나, 삼일, 충현, 명성, 여의도순복음, 순복음인천, 온누리
(2) 교회 홈페이지	2개 -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3) 인쇄물	7개 - 경동, 울산, 삼일,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순복음인천, 영락

- ‘스크린화면’과 ‘인쇄물’ 둘다 공시 2개 교회(삼일, 순복음인천)

- ‘홈페이지’와 ‘인쇄물’ 둘다 공시 2개 교회(거룩한빛광성, 백주년)

2) 귀 교회는 재정 결산서 제공하는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인	12개 교회-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여의도(제직성도), 영락, 충현, 삼일, 호산나, 울산, 경동, 동광, 열린
외부인	2개 교회-백주년, 거룩한빛광성

3) 귀 교회는 결산서를 몇 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하십니까?

매월	6개 교회 - 온누리(당회만), 여의도(제직회만), 영락, 백주년, 울산(당회만), 동광(2개월마다)
분기별	7개 교회 - 순복음인천, 백주년, 거룩한빛광성, 호산나, 울산(제직회만), 경동, 열린
반기별	0개 교회
연간	8개 교회 - 명성, 온누리, 여의도, 영락, 충현, 백주년, 삼일, 울산(공동의회)

(* 영락교회와 백주년교회는 매월과, 연간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4) 귀 교회에 시무하는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습니까?

납부하고 있다	9개 교회-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영락, 충현, 백주년, 경동, 열린, 여의도순복음
납부하지 않고 있다	5개 교회-삼일, 호산나, 울산, 동광, 거룩한빛광성

5) 신고하고 있다면, 시행 시기를 기술해주세요.

명성교회	약 20년 전부터
온누리교회	2000년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1986년도부터
영락교회	1960년도부터
충현교회	1998년도부터

백주년기념교회	2005년 7월 교회 설립 이후
---------	-------------------

6)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전임사역자	순복음인천, 영락, 백주년
파트사역자	경동
기타	충현(목사, 전도사, 직원)

IV. 결산서 자료제공 요청과 그 답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들

1. 요청서를 보낼 후보로 선정된 34개 교회는 언론상 인지도가 있는 중대형교회 중에서, 지역과 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추천을 통해 선정되었기에,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다소 모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다. 통계적 표본이라기보다 포커스그룹 리서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응답률만을 보인 것을 볼 때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 또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에는 2차에 걸쳐 요청을 보내는 등 예상 밖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각 교회가 이런 종류의 답변에 대해 익숙지 않다는 것과 이 주제에 관한 한 외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파송선교사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렸으리라 예상된다.
3. 응답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통상적인 예상과는 달리,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편 대외적인 재정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중소교회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인데, 대개 중소교회의 경우 목회자 납세는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대외적으로 재정결산서를 제공하는 곳은 소수인 가운데, 재정 공개를 명목상으로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내적인 공유마저도 홈페이지나 인쇄물보다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단회적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재정공개の本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한(파악된) 교회들도 그 시행시기와 원천징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초조사에서 답변 자체를 거부한 교회들에 대해 다른 경로를 통해 소득세 납부여부를 파악한 경우가 더 많은데, 시행시기와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6. 각 지역교회는 현재 특별한 감사 사안에 결부되지 않은 한 총회나 노회에도 재정결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의 외부단체에 결산서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도 확인되었다.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재정결산서 등도 공시로서의 정보보다는 공개행위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만, 이러한 공신력 있는 재정공개 검증기관이 대형교회나 특정교파 등을 통해 설립될 경우, 자칫 재정공개를 통한 신뢰도마저도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과제이다.

7.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집중해서 계몽해야 할 영역으로 개교회의 재정공개운동은 당분간 유효하며, 이를 위해 모본이 될 다수의 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교단차원의 재정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교단이 재정투명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경주하게끔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병행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순서2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1. 들어가는 글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경영을 위임한 이후 위탁자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임원들이 경영 결과로서 작성한 결산서를 보며 경영을 잘 하였는지 평가하고 계속 경영을 위탁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임원들이 주주들에게 결산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주주로서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법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위탁자로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교회 재정 공개여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재정공개로 발생하는 진행의 어려움을 막고자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재정공개요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고민하고, 담임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관규정을 개정하여 재정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무용담을 나누는 현실 앞에서 교회가 감당해야하는 재정관리와 이의 결과인 재정공개 의미와 속성에 대해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교회 재정관리의 역학관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자로서의 출자자’와 ‘관리자로서의 경영자’의 정체성이 구분되기에 재정관리의 주체와 보고의 주체, 보고의 대상, 보고의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누가 누구에게 관리를 위임하는가?

영리기업의 경우 출자자가 관리를 위탁하고, 비영리법인은 출연자들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 상법 제466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것을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교회는 현금/연보를 출연한 교인들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책임을 받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다. 이중적 구조이지만 수탁자는 '교회'로 동일하므로 교회재정관리 수탁자로서의 '교회'의 개념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개체로서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위탁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다.

교회재정관리의 구조는 개체로서의 교인들이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재정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보고/재정공개는 이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일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교회 재정관리의 공공성

아담의 타락이후 구약시대 세상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와 '일반 공동체'로 구분되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일반 공동체인 이방족속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했었다. 이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인 일반 세상/사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한다.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나라 백성들간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임으로 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공공성이 의미를 가진다.

재정보고는 교회의 사역 결과를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교회 재정이 공동체 이상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결과 또한 일반공동체에 공개됨으로 일반공동체가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정공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4. 투명성

투명성은 재정공개로 확보되는 속성이다.

투명하다는 것은 유리창너머로 보는 것 같이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해관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제약없이 접근 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면 드러난 과정들을 보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바른 재정관리의 '충분조건'은 아

* 한스 쾅,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2012, pp64~65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IVP, 2002, P69

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한 결과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나의 오류와 실수를 지적하면 겸허히 개선하겠다’는 청지기 관점의 관리자적 고백과 ‘본인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5. 재정공개와 질(質)과 양(量)

재정공개는 공개되는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되는 정보가 가지는 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전제로 해야한다.

재정을 집계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표현하며, ‘회계(會計)’는 특정한 모임(group, 會)으로 집계(計)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의 공통적 속성(계정과목)으로 집계하여 재정적 사건의 총괄적 의미를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공개 정보 이해차원에서 부족하며,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들이 가지는 총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결산서의 숫자적 표현으로 부족한 속성적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재정공개와 걸림들

(1) 효율성과 신속성의 장애물

재정을 공개하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인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교회가 해야하는 사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우리는 ‘누가 사역을 진행하고?, 누가 교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야한다.

교회의 의미가 공동체적 구성원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내 힘 있는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하는 것이며, 소수가 교회의 이름으로 다수 교인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탈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교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소수 집행진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면 이는 교회의 재정관리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결과 이전에 수행되는 공동체적 진행과정에 의미가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강한 사람이 좀 더 약한 지체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과정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공동체로서 가져야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2) 약한 지체들의 부담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경우 어려운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까 하는 염려로 재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전히 동일한 관점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지체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배려 이전에 믿음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제자로서 입교하는 구성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제자로서 교회의 청지기적 주체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 관객, 이적과 기사를 찾아 다니던 무리로 전락 시키는 것이 아닌가?
- 재물을 가지면 심적 여유가 있고 재물이 없으면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과 맘몬 중 누구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인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또한 구성원들이 같이 풀어갈 사안으로 인식될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된다.

(3) 지역교회 중심적 사고(思考)

지역교회 구성원 이외의 자들을 모두 외부인으로 보고, 재정정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회가 폐쇄적 사교(社交)집단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이다.

지역교회는 특정 지역의 구속사역으로 부름 받았지만 지역교회 구성원만의 별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적 필요에 의해 여러 곳에 산재하지만 각각 별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족속을 향하여 택함 받았지만 선민사상에 갇혀 넘어진 상황이 세상을 향하여 부름 받은 교회가 성민(聖民)사상에 갇혀 일반 사회를 품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되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현실앞에서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

(4) 미덕으로 보는 덮어주는 관행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기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앞세워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사랑의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린 이후 잘못에 대한 회개와 개선이 있을 때 공동체가 포용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덮기만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교회 재정관리는 교인들에 대한 수탁자적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수탁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구조이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수탁자적 책임을 면제시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

(5) 투명한 정보공개 의 단점

교회 재정 사용에서 구체비 지출, 장학금 지급 등 특정한 경우 개인의 자존감(Privacy)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 한스 링, 전계서, p67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i) 비용지출에 대한 원칙(또는 규정)을 사전에 정하고, ii)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iii) 특정인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와 같은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고 iv) 공동의사결정기구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나가는 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정보가 많이 노출 될수록 경쟁기업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의 지분만 가져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공개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회사에서도 소수를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소수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보다 더 공동체성이 강해야 하는 교회에서 교인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교회에 과연 공동체적 관점이 있는가? 이러한 교회의 관점을 보며 일반사회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재정공개를 제한하면서 지키는 가치가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내어놓아야 한다.

■ 순서3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사회자



김종희 대표
뉴스앤조이

패널 1



문희곤 목사
높은뜻푸른교회 목사
예수전도단 전(前) 대표

패널 2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전(前) 담임목사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내용은
뉴스앤조이 녹취기사를 행사 이후 참고로 붙여 소개합니다.

재정 공개, 교회에 좋기는 한데...

문희곤·이재훈·최호윤·황병구 좌담,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0호] 2014.06.19 15:31:29

정리 장성현 (bansug5@newsjoy.or.kr)

<http://m.newsjoy.or.kr/articleView.html?idxno=196969>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6월 18일 오후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재정 공개 실현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문희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가 발제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김종희 대표(뉴스앤조이)가 진행했습니다. - 편집자 주

김종희 대표(이하 김종희) : 높은뜻푸른교회는 복식부기를 도입했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 하나다. 대형 교회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온누리교회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재정의 투명함이 재정 운용의 건강함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온누리교회와 높은뜻푸른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 재정을 공개하는지 궁금하다. 먼저, 교회 재정에 대한 원칙, 가치관, 철학부터 얘기해 달라.

문희곤 목사(이하 문희곤) : 가장 큰 원칙은 교인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정직함과 투명함은 높은뜻송의교회에서 분립했을 때부터 이어 온 전통이다. 투명·신뢰·정직이 원칙이다.

이재훈 목사(이하 이재훈) : 원론적인 얘기지만, 헌금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큰 원칙이다.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수 있게끔, 성경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해서 소수의 리더십에 의해서 재정이 좌지우지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명하게 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한 투명인가? 하나님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김종희 : 원칙이나 방침을 목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재훈 목사 : 온누리교회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장로들로 구성된 예산위원회가 가동된다. 인원은 15명에서 20명 내외다. 예산위원회는 매년 각 부문별 사역을 평가한다. 각 사역팀과 위원회가 1대 1 면담을 통해 사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1년에 2번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는다. 평상시에는 교회 내 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상시 가동된다. 1년에 전반기·후반기 2번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당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예산 집행, 재정 감사, 사후 처리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예산위원회가 사역에 대한 평가까지 맡다 보니 업무량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사역위원회를 신설, 사역에 대한 평가는 사역위원회가 맡는다.

예산위원회에서는 회계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배차·집행·감사한다. 재정 수립부터 감사까지 모든 과정을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맡는다. 담임목사는 예산을 수립할 때 중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끝난다. 예산위원들이 담임목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예산위원회나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담임목사가 단독으로 지명하지 않는다. 복수의 그룹에서 추천되고 선발된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복수 리더십 구조이므로 투명하고 균형 있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김종희 : 한국교회에는 특정 인물이 재정 팀장이나 위원장 등을 10년, 20년 동안 독식하면서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재훈 : 온누리교회는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위원장이 모든 걸 관할할 수 없는 구조다.

김종희 : 높은뜻푸른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나?

문희곤 : 예산을 짜는 과정은 비슷하다. 공동의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높은뜻연합선교회 소속 교회들은 장로들이 재정 결의권만 갖고 있고 사용권은 제직회가 가지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다. 최호윤 회계사의 제안으로 회계 방식을 복식부기로 바꿨다. 회계 실무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복식부기를 하면 재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대차대조가 일치해야 하니까 교회 재정이 투명해진다. 개별 단위 부서장들도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든지 교회 재정과 부서 재정을 볼 수 있다. 복식부기가 좀 피곤하긴 해도,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훨씬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

재정 사용 내역을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 헌금은 매주 주보에 다 실린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회 돈이 따로 있고, 후원금이 따로 있다. 재정 장부에는 교회 돈만 기록한다. 높은뜻푸른교회는 후원금을 먼저 쓰고 교회 돈은 나중에 쓴다. 쓰고 남으면 교회 돈을 재정에 반납한다. 어떤 교회는 교회 돈을 먼저 쓰고 후원금이 남으면 회식하는 데 쓴다.

외부 감사와 자체 감사를 다 해 봤다. 대부분 외부 감사로 하고 있다. 교인들에게 감사 결과를 모두 설명한다.

김종희 : 외부 감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비용 부담이 클 것이다.

문희곤 : 최호윤 회계사에게 교회 사정 잘 얘기하면 싸게 해 준다. (웃음) 작은 교회도 매주 10만 원씩만 모으면 감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김종희 : 최호윤 회계사가 투명한 교회 재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해 줬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재정을 공개하라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훈 : 최호윤 회계사의 의견에 100% 공감한다. 그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면 한국교회 이미지가 상승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 개교회주의의 취약점을 이런 운동들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교회 재정이 내부 지향적으로는 얼마나 쓰였고, 외부 지향적으로는 얼마나 쓰였는지 항목별로 따져 본다. 교회 규모가 크니까 자체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분기별로 재정 흐름을 분석해서 외부 지출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 교인은 순종적이고 착하다. 일부 교회의 교인들이 재정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다. 목회자는, 3%가 아니라 한 분의 교인이라도 재정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희 : 최호윤 회계사가 높은뜻푸른교회 감사를 맡으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최호윤 회계사(이하 최호윤) : 높은뜻푸른교회를 만나서 2년 동안 씨름했다. 이제 겨우 복식 부기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처음 나온 감사 의견은 한정(부적합)이었다. 교회를 분립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음향 장비와 부품들이 재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문희

곤 목사가 교인들에게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 높은뜻푸른교회는 재정 공개를 진행하면서 교인들과 목회자가 같이 만들어 갔다. 나는 옆에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단순히 공개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교회 내부에서 재정 공개에 대한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 강단에서 교회 재정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돼야 한다.

김종희 : 황병구 본부장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온누리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교회 교인들은 투명한 재정 공개에 대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34개 교회에 대해서 분석한 것과 이 두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황병구 본부장(이하 황병구) : 높은뜻푸른교회와 온누리교회는 좋은 여건에서 사회적 요구들을 소화하고 있는 듯하다. 높은뜻푸른교회는 높은뜻교회 시절부터 건강한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덕분에 이런 교회 교인들은 재정 공개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결산서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유추해 본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적폐라고 할까? 과거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들을 지금 세대가 감추고 있다. 자산 형성 과정, 운영 관행들을 내보이기 힘든 것 같다.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게 취해진 부당한 핍박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감내해야 하지만, 약자에게 행해지는 강자의 횡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신 저항해 줘야 한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내가 쓴 헌금에 대해서는 파고들려고 애쓰지 않고,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권사님들의 소중한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민감하게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종희 : 두 교회는 토양과 여건이 좋아서 재정 공개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은 목회자들로서 변호할 부분이 있거나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문희곤 : 목회자들은 회계를 잘 모른다. 배워 본 적이 없다. 대차대조표 보는 법도 잘 모른다. 내가 선교 단체에 있을 때 대차대조법을 배우는 데 5년이 걸렸다. 일단 목회자들이 배워야 한다. 신학교 교육 과정에 회계학 원론 같은 수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재정을 공개하면 보이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된다. 얼마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배워야 한다. 직원도 막 뽑지 말고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회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높은뜻푸른교회에 오면서 월급을 처음 받아 보고, 세금도 처음 내 봤다. 그런 경험을 해 보니 상당히 복잡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정해진 원칙이 있어서 그나마 편했다. 교회들이 원칙을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재훈 : 한 명의 교인이라도 재정 장부 공개를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교인이 와서 보여 달라고 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 (웃음) 솔직히 그런 부담이 있다. 감춰야 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서, 목회자로서 부담감이 있다.

교회 재정을 공개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회계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회 안에 회계 전문가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도 많다. 회계 항목, 운영 방식 등 사회법을 엄격하게 따르면 교회 재정이 불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 또 리더십에 대한 제한, 사생활 보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인들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인 것 같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보 접근 권한은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차원과 리더들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나 기업의 예산에도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 따로 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호윤 : 이재훈 목사가 말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기업을 감사하는 틀에서 교회 재정을 감사한다. 그러면 곤란하다. 교회 회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황병구 : 재정 공개도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례로 건물을 산다고 치자. 재정 장부에는 건물의 매입과 등기만 존재한다. 건물의 용도, 건물의 스토리 등이 재정 공개에 동반될 수 있다면, 재정 결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밝힐 수 있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더 소상히 밝히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종희 :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10년 전부터 민주적인 정관을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고, 그중

에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관 개정 운동이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목회자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시키는 흐름이 있다.

교회가 긴장이나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재정 공개 이야기가 나오면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데에는, 상대방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자는 의도가 크다. 황 본부장이 얘기한 수준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고, 교회 재정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회계사들이 많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재훈 목사가 고민을 얘기했듯이, 속속들이 다 밝혀야 하나. 목회적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재훈 : 역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더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교적 차원에서 영수증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선교지를 방문할 때 선교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는가. 차후에 선교사 자녀를 위한 격려비를 지급했다고 사용 내역은 작성해 보고한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니,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당회원들조차도 돈의 액수를 생각하는 느낌이 달랐다. 100불을 지출하면 어떤 교인은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인은 적다고 생각했다. 그런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대사회적인 운동을 펼칠 때 어떤 교인은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인은 작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서 당회 예산 전결권, 제직회 전결권, 공동회 전결권을 나눴다.

온누리교회 역시 그렇게 적용해서 지키고 있다. 리더 그룹 단위에서 투명하게 합의된 내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산 단위별로 공동체가 가치를 정하고 이에 합의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뒷받침됐을 때 재정 공개가 가능하다.

김종희 : 온누리교회는 얼마까지는 당회 결의, 얼마까지는 제직회 결의,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나누나?

이재훈 : 그렇다. 담임목사가 당회의 사전 결의 없이 쓸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다. 물론 당회 안에 몇 명과 의논하고, 사용 내역은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니 일일이 의논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다.

김종희 : 이번 선거에 출마한 어떤 교육감 후보는 5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하니까, 같은 날 짜 같은 장소에서 49만 원짜리 영수증을 따로 몇 개 만드는 꼼수도 부리면서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이재훈 : 그것은 상식의 문제다. 구성원들이 모두 부패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병구 : 기준이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격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수련회 도중 사고가 나서 급하게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김종희 : 무작정 투명, 무작정 민주적이 아니고, 교회의 특수성이나 형편을 감안해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재훈 : 교회별로 중요한 항목별 가치 기준이 다를 것 같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안이 또 다른 교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목회자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상호 충돌이 생긴다. 교회별로 이 정도는 알아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최호윤 : 막내가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의 공통점은 조용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다. 하긴 어른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약속하고 원칙을 정해야 한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 없이 일이 벌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발생한다.

김종희 : 사랑의교회 같은 경우 한쪽에서는 재정 공개를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막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평소에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분규가 일어난 상태에서 재정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 재정·정관 문제는 평안할 때 해야지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최호윤 :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대부분의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을 통과시킨다. 그 자리에서 예산안을 보여 주고 바로 결정한다. 대부분의 교인은 100만 원 단위 넘어가면 잘 읽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결산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1, 2주일 전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미리 나눠 주고 교인들이 숙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

김종희 : 온누리교회는 파워포인트로 결산 보고를 공개한다고 했다.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교

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나?

이재훈 :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부를 생각하면 공개하는 것의 장점 못지않게 폐단도 크다. 큰 교회가 더 시달릴 수 있다. 또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재정 규모가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면 좋겠다.

문희곤 : 재정 공개하면 편지 엄청 온다. (웃음)

김종희 : 재정 공개 문제는 개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학교, 노회, 총회, 연합 기관, 선교단체, 각종 단체 등등, 얽혀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교회에 대한 재정 투명 요구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재훈 : 미국에는 투명성을 인증해 주는 기구들이 있다. 일종의 인증 제도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이런 운동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재정 투명성 기준에 따라 본인이 동의해서 가입하고,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고, '이 교회들은 여기에 가입한 교회다, 인증받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다.

김종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

최호윤 : 꿈이다. 꿈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으로의 꿈이다.

■ 단체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cfan.or.kr 이메일: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경영연구원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전화_02-718-3256 팩스_02-718-3528
홈페이지_www.kocam.org 이메일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_02-777-1333 팩스_02-319-1103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주소_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_02-924-0240 팩스_02-924-0243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_thebrightfd@gmail.com